

도서관들 9월 '독서의 달' 맞아 풍성한 문화 행사

가족 함께 책속 보물 찾고 작가 만나고 전시 즐겨요

광주 지역 도서관들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한 달 동안 알차고 풍성한 독서 잔치를 준비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해와 달리 책과 요리를 접목시킨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비롯해 유명 작가의 초청 강연 등 눈에 띄는 행사가 많다. 또 직접 만든 작품으로 전시도 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됐다.

◇온 가족과 함께해요.

광주시립 산수도서관(062-613-5349)은 27일 오전 9시30분 사회교육실에서 동화 속 상황을 감자로 그려보는 '요리와 함께 떠나는 동화나라'를 마련했다. 또 7일 오후 3시에는 산수공원에서 숲 해설가로부터 다양한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체험활동을 해보는 '숲 해설사와 함께하는 나무와 식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광주시립 사직도서관(062-613-5348)은 '가족구연동화대회'(24일 오후 3시)를 개최, 재미있게 동화 구연을 한 가족 3팀을 선발해 시상 한다. 또 7일 오후 2시에는 클레이 아트로 '책 엷서'를 직접 만들어 전시 한다. 이밖에 '필리핀 엄마가 읽어주는 영어동화'(17일 오후 3시)와 어린이들이 자신만의 동화책을 만들 어보는 '나도 그림책 작기'(9일 오후 3시)를 진행한다.

광주시립 무등도서관(062-613-5347)은 5·19·26일 오후 4시 조선대 WISE 광주·전남지역센터에서 '엄마와 함께 실험을 해요' 코너를 마련, 전자기타·삼색접시·편광마술·상자 등 다양한 실험을 준비한다.

광주 일곡도서관(062-575-3457~8)은 한 달 동안 어린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 '책 속의 보물 찾기'를



지난해 9월 광주무등도서관이 '독서의 달'을 맞아 마련한 체험프로그램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있다. (광주무등도서관 제공)

실시한다. 책 사이에 숨겨놓은 '보물'을 찾아오면 5천원,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는 행사다.

◇유명 작가 강연회를 찾아가 볼까

산수도서관은 19일 오후 3시 시청각실에서 '섬진강 시인'으로 유명한 김용택 시인을 초청, '사람을 귀하게 가꾸는 글쓰기 교육'을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

일곡도서관은 4일 오후 3시 강당에서 제2회 세계문화상 당선작인 '아내가 결혼했다'의 저자 박현우씨를 초청, 작가와의 만남을 준비했다. 이번 강연에서 박씨는 '문화과 삶'을 주제로 뒤늦게 문학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소설을 쓰게 됐는지 등 작가의 경험을 토대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밖에 무등도서관은 '마음 알기 자기알기' 등을 펴낸 소설가 이남희씨(16일 오전 10시)와 '철 가방을 든 돌김이' 등을 쓴 동화작가 안미란씨(10일 오전

10시)의 특강도 마련했다.

◇전시도 함께 즐겨요.

사직도서관은 22~30일까지 곡성 출신인 조태일 시인의 주요 작품을 시화로 전시하는 '남도 시인전', 8~19일 까지는 동화책 주인공을 클레이 아트로 표현한 작품을 전시하는 '말랑말랑 찰흙으로 빚은 세상'전을 각각 연다.

산수도서관은 9월 한 달 동안 '3전3색'전을 진행, '개구장이 그느느-동화책 원화전'(2~12일)과 음립픽을 주제로 한 북아트 전(16~22일),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민화작품을 전시하는 '민화전'(1~30일)을 연다.

일곡도서관은 '제1회 월간 아동문학 출신 작가 동시화전'(5~24일), '주부들이 꼭 읽어야 할 도서전시'(5~24일)를 열고 16~22일에는 재미있는 영어 동화책과 시청각 자료도 함께 전시한다.

이밖에 무등도서관은 '마음 알기 자기알기' 등을 펴낸 소설가 이남희씨(16일 오전 10시)와 '철 가방을 든 돌김이' 등을 쓴 동화작가 안미란씨(10일 오전



내달 3일~12일 전국무용제
15개 시·도 대표팀 열띤 경연

목포서 전국 무용 큰잔치

'대한민국, 무용의 현주소를 만나다.'

지역 무용인들의 가장 큰 축제인 제 17회 전국무용제가 오는 9월3일부터 12일까지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과 야외무대에 서 열린다.

'feel to you'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용제에서는 지역 예선을 통과한 15개 시도 대표팀이 열띤 경연을 펼치며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도 준비해 신명난 문화축제로 치러진다.

3일 오후 5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목포시립무용단과 국립발레단, 유럽현대무용단, 에콰도르 무용단 수사나리에스 등이 출연하는 화려한 개막 공연이 펼쳐지며 4일에는

지난해 전국무용제 대통령상 수상팀인 광주의 김미숙하나무용단이 축하 공연을 갖는다.

경연작품으로는 전남 대표인 도은정 발레단의 '팡! 스민 시간들'(4일), 광주 대표인 오윤환 로얄 발레단의 '하얀 그림자'(9일)를 비롯해 박서정무용단(제주)의 '무향회', 한동엽무용단(경기)의 '바람 속에 날려질제', 이미정 무용단(울산)의 '세상의 우산', 이에아 무용단(인천)의 '나비의 꿈', 한두례 무용단(경북)의 '무위의 춤을 추며' 등 모두 15개 작품이 지역의 명예를 걸고 무대에 선다.

또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코스프레, 역대 대통령상 수상작 회고전, 무용의 상 체험, 포토존과 먹거리 장터 운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티켓은 목포역 관광안내소와 축협과 농협 하단 지점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현장에서도 받을 수 있다. 문의 061-283-772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재청, 동의보감 등 6건 보물 지정

동의보감이 국가지정 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5권) 및 규장각 한국학연구원(24권·1권 낙칠)에 각각 소장돼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이미 보물 제1085호로 지정돼 있다.

(腹藏遺物), '서산 문수사 금동여래좌상 복장유물', '청자 양각 연판문 접시' 등 6 건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의보감은 허준 등이 선조의 명을 받아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서들을 모아 집대성

한 한의학 백과사전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5권) 및 규장각 한국학연구원(24권·1권 낙칠)에 각각 소장돼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이미 보물 제1085호로 지정돼 있다.

문화재청은 "국내에 남아있는 동의보감 초간본(복자본)은 전본이 드물어 희소성이 있으며 한국 의학사와 임진왜란 이후 도서출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며 동의보감의 보물지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호남예술제 출신 김세실양 가야금 독주회

금호 국악 영재에 뽐혀
30일 서울 금호아트홀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호남예술제 출신인 김세실(광주 비아중 3년·사진)양이 2008 금호영재콘서트 시리즈에서 가야금 독주회를 갖는다. 30일 오후 3시 서울 금호아트홀.

금호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금호영재콘서트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국악 영재로 선발된 김양은 이번 연주회에서 12현 가야금과 25현 가야금을 연주할 예정이다.

"광주비엔날레 귀로 들으세요"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방송

"광주비엔날레 이제는 귀로 들으세요," 제7회 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 기간에 전시정보, 작가, 큐레이터 인터뷰 등을 담은 라디오 프로그램이 제작돼 전시장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제안' 섹션에 참여하는 압델라 카루온(Abdellah Karroum·모로코) 큐레이터가 지휘하는 '라디오 아파트 22(Radio Apartment 22)'는 라디오 방송을 이용한 작품이다.

실시간으로 비엔날레 소식을 전하고, 한국인 디스크자카가 이주노동자에게 '디제잉'

(DJing)을 가르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광주비엔날레를 주제로 작가, 관람객, 큐레이터 등이 자유롭게 참여해 방송을 만드는 일종의 참여 퍼포먼스이며, 라디오 프로그램 자체를 하나의 예술 장르로 만든 셈이다. 방송은 하루 3시간씩 하며 영어, 불어, 아랍어, 노르웨이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세계에 광주비엔날레 전시 주제 상황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방송은 광주비엔날레 재단 홈페이지(www.gb.or.kr)나 라디오 아파트22 홈페이지(www.radioapartment22.com)에서도 들을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댄스컬 '잔향' 쇼케이스

광주에서 처음 선보이는 댄스컬(댄스+뮤지컬) '잔향'이 오는 9월 20~21일(5·18기념 문화센터) 정기 공연을 앞두고 작품을 미리 선보이는 쇼케이스를 진행한다. 29일 오후 7시 광주 금남공원(옛 한국은행 자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댄서들과 연극인들이 공동 제작한 '잔향'은 비보잉, 팝핀, 힙합 등 다양한 댄스와 연극, 영상 등을 접목시킨 작품으로 화제를 모고 있다.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춤연자 소개와 함께 '엄마와의 이별', '길거리 씬' 등 공연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시연하며 스트리트 댄스팀 '뉴런'의 공연도 진행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보다 더 재밌는 영화관 www.megabox.co.kr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미니박스 구. 텐션 액션시리즈 ▶ 예매 1544-0600

1관 다크나이트 (15세) 최고급관

2관 고사-피의증간고사 (15세)

3관 CJ7-장강7호 (12세)

4관 썸머슬리스스 (15세)

5관 눈에는 눈이에는 이 (15세)

6관 다찌마와 리 (12세)

7관 슈퍼히어로 (12세)

8관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세)

9관 스마트피플 (15세) / 액스파일 (12세)

10관 미드나잇 미트 트레이 (18세)

엔터 시네마

총장로 5가 (전화번호) 228-2700

1관 CJ7-장강7호 (전체)

2관 X파일 (15세)

3관 다크나이트 (15세)

4관 월드 (전체) /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세)

5관 고사-피의증간고사 (15세)

6관 다찌마와 리 (12세) / 님은먼곳에 (15세)

7관 미아리3 (12세)

www.entercinema.co.kr

* 호남 최대 주차장 300대 * 금토 심야상영

* 아름당화동선-미술관상영 (8월10일까지)

영화 흥행 이수하면 경품과 티켓이 쏟아진다! (2008.8.31)

* 아트뮤 주차장 이용 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초과시 1000원 부과

영화보기 더 재밌는 영화관 www.megabox.co.kr

영화보기 더 재밌는 영화관 www.megabox.co.kr